SK-LG, 2003년 배당 "1-2위 경쟁"

증권거래소, 12월 결산법인 배당현황 발표 … SK가 9613억원으로 Top

SK와 LG가 순이익에서 배당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에서 각각 63.34%, 56.97%를 나타내 1, 2위를 기록했다.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을 제외한 정기주총 실시 법인 532개사를 대상으로 한 2003사업년도 배당현황에 따르면, 2003년 배당금 총액이 7조 2266억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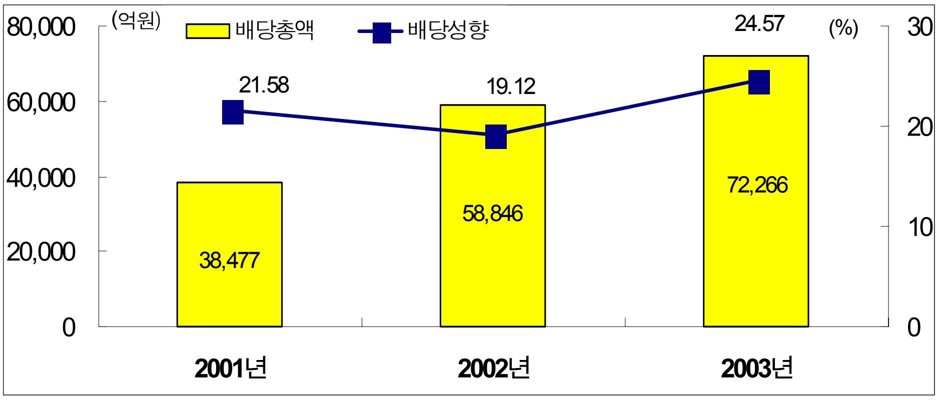
총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22.81% 증가한 것이며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도 2002년 335개사에서 372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대형 우량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로 외국인 배당금도 2조7044억원으로 전년대비 25.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2002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배당성향은 전년대비 5.45%p가 증가한 24.57% 기록했다.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 역시 주주중시 경영의 확산으로 점차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배당금과 배당성향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총액과 배당성향 추이(2003)



SK는 순이익 1517억 중에서 9613억원을 배당해 1위를 차지했고 LG가 2위, 이수페타시스가 6위, 백광소재가 9위에 올랐다. S-Oil은 배당금총액에서 10위, 외국인 배당금에서 9위를 차지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3/3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